

(주)모비젠, 코트라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수주

- ◆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수주
- ◆ 빅데이터 솔루션 '아이리스' 기반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연계 서비스 개발

데이터 기반의 기업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전문 기업 (주)모비젠(대표 김태수, 고필주)은 코트라(사장 권평오)의 '무역·투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하여 개발에 착수했다고 00일 밝혔다.



<이미지-코트라 제공>

본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수출지원 및 투자유치에 대한 업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자산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기술을 적용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하는 무역·투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국내기업, 바이어, 투자가 등 고객이 공사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에 접근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이번 사업에서 해외 진출 서비스의 O2O 융합을 통한 스마트 지원체계 구현,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코트라는 지난해 추진된 빅데이터 정보화 전략 계획을 통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세부 과제 및 이행 계획을 도출했다. 시범사업으로 해외 기업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수출 지능형 모델 개발, 수출 전주기 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서 모비젠은 자사의 빅데이터 솔루션 '아이리스(IRIS)'를 통해 검증된 실전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역·투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에 참여한다. 주요 사업 범위는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구축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모델 및 연계 서비스 개발(지능형 모델) ▲데이터 내외부 연계 및 공유 개방체계 수립 ▲지능형 빅데이터 서비스 포털 구축을 포함한다.

김형근 (주)모비젠 CTO는 "이번 사업은 향후 개방형 공유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고려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모비젠은 지난 10여년 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연계 기술과 더불어 오픈 데이터 서비스 분야의 기술 개발을 수행해왔다. 다년간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주)모비젠은 최근 수원시청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해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본인정보 활용(MyData) 사업 등 정부 주도의 다양한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SK텔레콤, LGU+ 등 통신 사업자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별첨]-회사소개

(주)모비젠의 역사는 2000년 회사 설립 당시,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사의 대용량 과금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신서비스 고객의 체감 품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시작된다.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생소했던 당시에,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하루에 수 천만 건씩 생성되는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10 여건의 관련 특허를 포함하여 이를 꾸준히 발전시킴으로써, 기업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주)모비젠은 누구나 개발자의 도움 없이 빅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탐지 및 예측 수요에 시기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AI 분야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 환경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OSS(Operation Support System, 운용 지원 시스템)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인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주)모비젠이 2008년에 한국 최초로 독자 개발하여 출시한 빅데이터 플랫폼인 ‘아이리스(IRIS)’는 일일 수천억 건씩 발생하는 빅데이터의 수집, 가공, 저장, 탐색, 분석 및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토탈 서비스를 성능 저하 없이 제공함으로써, 페타바이트(PB) 수준의 빅데이터를 보유한 고객들이 단시간내에 인사이트를 도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주)모비젠은 SK텔레콤, LGU+ 등 통신 사업자를 비롯하여 SK 브로드밴드, SK 하이닉스, 코레일, 삼성 화재, 금융보안원, 전력연구원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고객들의 비즈니스 개선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본인정보 활용(MyData) 사업 등 정부 주도의 빅데이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사업문의] 모비젠 사업총괄 이세연 부사장 010-4114-9360 sylee@mobigen.com

[PR] 지란지교시큐리티 전략기획부 박지선 대리 010-2766-0657 js_pr@jiran.com